

리암 길릭

워크 라이프 이펙트

6월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3월호



키냥



‘색채 속을 유영하는 도시의 산책자’

‘일과 삶 간의 복잡 미묘한 긴장과 균형’ 각자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전시

‘YBM’ 멤버로 활동해온 리암 길릭은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대표 작가로 선정돼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타국 국가관을 대표하는 외국인 작가로 이름을 높였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리암 길릭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지난 30년 간 그가 발전시켜온 주요 주제들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자리다.

‘워크 라이프 이펙트’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전시는 ‘일과 삶 간의 복잡 미묘한 긴장과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디지털과 팬데믹 시대에 우리 일과 삶이 결합하는 양상들, 그리고 그 영향들을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시한다.

1-2갤러리에 전시된 다섯 작품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영향을 주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무엇보다 가장 흔한 회색으로 칠해진 벽면이 다채로운 색감의 네온사인인 것과 어우러지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신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수학공식이 적힌 이 네온 사인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에서 발표한 ‘행복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굳이 내용은 모르더라도 무언가를 넣고 빼는 자신만의 행복방정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환하게 빛나는 쇼윈도우같은 하나의 큐브 ‘워크 라이프 이펙트 스트럭처 A’에는 추상적 형태의 ‘Fins’와 ‘Horizons’ 시리즈 신작이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색채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공간으로 치유받는 느낌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전시실에 흐르던 ‘피아노 음악’의 정체를 만난다. 두 번째 큐브 ‘워크 라이프 이펙트

스트럭처 B’에는 디지털 피아노와 스노우머신으로 구성된 작품 ‘눈 속의 공장 -우편 배달부의 시간 (2007)’이 놓여있다. 건반과 패달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연주하는 음악은 군사정부에 대항하는 1974년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민중가요 ‘그란돌라 빌라 모레나(Grandola Vila Morena)’다. 전시실 의자에 앉아 훑날리는 ‘검은 눈’을 보며 반복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누군가가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면 1층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새로운 공간과의 만남이다. 사진 촬영 스폿으로도 그만이니 놓치지 마시길.

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관람객이 앉아 쉴 수 있는 ‘Moderation Toolbox-Gwangju Stool’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의 ‘S자형태’의 나선형 벤치로 베니스 비엔날레, 구겐하임뮤지엄 등에서 선보인 버전의 확장판이다. 미술관 입구의 커다란 유리벽에 맵핑된 텍스트는 우리 삶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어들이 패러디 돼 시(詩)처럼 적혀 있으며 미술관의 내부와 외부, 관람객과 공원이용객이 마주하는 복잡한 공간에서는 신작 ‘마음의 키오스크 광주’를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1 ‘워크 라이프 이펙트’ 주제로 열리고 있는 리암길릭전
- 2 ‘눈 속의 공장 -우편 배달부의 시간’
- 3 ‘Moderation Toolbox-Gwangju Stool’

카페·공방·책방...문화로 피어나는 광주 동명동 ‘전남의 풍경을 담다’ 전남도립미술관 23일 개관

새봄과 함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 거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오랜 시간 마을이 축적하고 품어온 시간과 역사를 바탕으로 카페와 식당, 공방, 동네책방 등 개성있는 공간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이 3월호 특집으로 ‘문화로 피어나는 광주 동명동’을 소개한다. ‘동리단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동명동의 보석같은 공간들을 살펴보고, 동명동을 지키는 문화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섬진강을 거슬러 산수유와 고장 구례에도 봄이 찾아왔다. 셋노랑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구례로 떠난 ‘씩씩사목 남도 한바퀴’는 코로나 19시대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은 힐링 대숲길과 소나무 숲길, 새로 동지를 튼 ‘섬진강책사랑방’, 우리말쟁이 산수유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안내한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인형엄마’로 불리는 엄정애 작가다. 작가는 종이로 형상을 빚어 만든 인형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인형마다 한국 신화의 뿌리가, 우리 시대 이웃의 얼굴이, 작가의 인생이 담겨있다. 최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머머리 인형전’을 마친 엄정애(65) 작가의 45년 인형 예술세계에 대해 들었다.

‘클릭, 문화현장’은 전남도립미술관으로 향한다. 예향 남도의 정체성을 담은 전남도립미술관은 2년 여의 공사를 마치고 최근 광양시 옛 광양역사에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로 설계된 도립미술관은 ‘전남의 풍경을 담다’라는 콘셉트를 내걸었다. 오는 23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도립미술관을 지면으로 먼저 만나본다.

새롭게 탄생한 또다른 문화 공간도 소개한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애물단지(?)였던

광주시 북구 문흥지하보도가 도심 속 바다 갤러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북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는 37명의 북구 거주 미술인들이 참여해 삭막하고 칙칙했던 문흥지하보도를 자연의 아름다운 사계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가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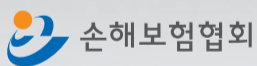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파주 미메시스아트 뮤지엄으로 안내한다. 포르투갈 출신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알바루 시자의 설계로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미메시스아트 뮤지엄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출판과 미술, 건축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은 건축사의 꿈을 담은 광주시 백운동 ‘백소현(白巢軒)’ 속으로 들어가본다. 임대형 건축가가 설계한 백소현은 어디서나 눈에 띄는 옥상의 독특한 사각형 박스가 인상적이다.

‘우리 땅 우리 문화’를 찾아가는 시간, 3월은 나무와 호수 이야기가 어우러진 한국의 대표 누각 남원 광한루로 향했다. 명승 제33호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건립된 대표 정원이자 4대 누각 가운데 하나로, 이동룡과 성춘향이라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온다.

매년 모교인 광주 동성고를 찾아 후배들과 훈련을 한다는 롯데하이마트 투수 김원중과의 인터뷰도 준비됐다. ‘초보 마무리’라는 우려 속에 2020 시즌을 시작했던 그는 승리의 기쁨, 실패의 좌절을 모두 경험하면서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다. ‘장발 투수’라는 수식어와 함께 긴 머리를 휘날리며 강속구를 뿌리던 김원중은 시즌이 끝난 12월 길었던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아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기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